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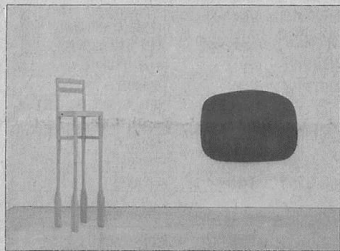
안규철의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의 전시장 모습.

국제갤러리 제공

안규철 작가, 국제갤러리서 '당신만을 위한 말' 작품전

소리 안 나는 종은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정부와 사람 떠올리고
달리지 못하는
자전거에선
막힌 한국사회 연상

딱 봐도 분명 종인데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금속이 아니라 수심장의 천(벨트)을 차곡차곡 붙여 만든 종이기 때문이다. 탁구공·야구공·축구공·농구공·골프공 등 공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그런데 야구공과 비슷하게 그 크기들이 모두 똑같다. 보기에는 양인데 몸 전체는 표범 가죽이고, 나무 상자를 열면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으며, 집은 집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의 현관에 서부터 뒤쪽까지 통로가 뻗고 있다.



사회든 삶이든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읽어내고 비춰주는
예술작품의 힘 믿어

전시장 다른 쪽에는 높이 2m에 이르러 나무의자가 놓여 있다. 의자기는 하나 사람이 앉거나 쉬기는 힘들다. 의자가 그렇게 높아진

것은 네 다리가 빼를 짓는 기다란 노이기 때문이다. 맞은편에는 '두 대의 자전거' (2014년 작품)가 있다. 그런데 한 자전거는 손잡이가 달린 앞바퀴 두 개가 마주 붙어 있고, 다른 자전거는 안장과 뒷바퀴 두 개로 구성됐다. 자전거를 절반으로 잘라 앞부분과 뒷부분끼리 붙여 놓은 것이다.

안규철 작가(62·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작품전 '당신만을 위한 말'(국제갤러리

에서 선보이고 있는 작품들의 일부다.

소리 나지 않는 종, 야구공만 하게 작아진 축구공과 더 커진 탁구공, 머무르지 못하는 집, 잊지 못하는 의자, 달릴 수 없는 자전거... 각각의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거나 기능, 역할이 어긋난다. 안 작가는 이렇게 주변의 평범한 사물에 작가만의 개념을 녹여내 사물을 오브제화하거나,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자리매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의자의 꿈을 노로 표현한 것처럼 아예 사물을 의인화하기도 한다.

사물 꼼꼼히 관찰하며 작품의 개념 세우

그의 작품들은 평소 접하는 평범한 사물들, 나아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거나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굳어진 고정관념을 새삼 깨닫게 한다. 소리 나지 않는 종을 통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정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달리지 못하는 자전거에서 깎 막혀 답답한 한국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크기의 여러 공들에서 획일화되는 삶과 세상사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주변의 사물, 일상의 여러 일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책 읽듯이 정성 들여 사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품 개념이 세워지죠."

전시장에서 만난 안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비추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미술작품을 경험하

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차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그기대만큼 많은 고민을 하죠. 평소 제 작품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늘합니다. 작가로, 교육자로써 저를 긴장하게 하는, 긴장감을 유지시키지는 불용어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되면 작업을 그만둬야겠죠. 젊은 시절부터 저는 제 작품을 질기고 거친 음식에 비유해 왔습니다.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좀 오래 머물며 사유하고, 일상적 삶의 리듬과는 다른 리듬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도록..."

전시장에는 설치, 회화작품도 있다. '당신만을 위한 말'은 풍개구름 모양의 펠트 부조에 얼굴을 묻고 나만의 소리를 내거나, 작품 속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람객이 나무 공을 놓으면 벽에 설치된 일정한 궤도를 따라 3분에 걸쳐 굴러 내려오는 설치작품 '머무는 시간 1'은 평소와 다른 삶의 시간과 궤적을 사유하게 한다.

안 작가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더라도 깨우침을 얻어 전시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기를 바란다"며 "사회든, 삶이든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읽어내고 비춰주는 예술작품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점에서 너무 끔찍한 형태. 30여년 전 검열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3월31일까지.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